

'투란도트' '옹알스'의 공통점은?

유튜브에서는 한국의 뷰티크리에이터 등이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한류는 이제 '동영상 세대'의 등장과 함께 일상 속에 자리하는 형태로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렸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공연산업 역시 작지만 조용한 흐름을 일으키고 있다.

글 서정준 문화뉴스 기자(some@munhwanews.com)



일본, 중국이 열광하는 한국 뮤지컬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 제작사 '신스웨이브'가 인기 아이돌과 뮤지컬배우로 구성된 한국 뮤지컬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아이 러브 유'가 5월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의 뮤지컬에는 2PM의 찬성, 탄탈의 니엘 등 많은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활약했다는 특징이 있다. 슈퍼주니어의 신동도 곧 데뷔할 예정이다. 일본은 또 뮤지컬 '삼총사'를 기획하면서 체코 오리지널 버전이 아닌 왕용범 연출의 한국 라이선스 버전을 수입해 공연을 올렸다. 왕용범의 또 다른 흥행작 '프랑켄슈타인'도 일본의 대형 제작사 '토호 프로덕션'과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흥행에 성공했다. 2016년 초연을 올렸던 '마타하리'는 지난 2월 우메다 예술극장에서 스몰 라이선스로 제작한 공연을 올려 호평을 받았다. 오는 11월 무대에 오를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토호 프로덕션에서 만든 오리지널 버전이 아닌 EMK뮤지컬컴퍼니가 제작한 버전을 바탕으로 공연될 예정이다.

뮤지컬 '빨래', '마이 버킷리스트', '빈센트 반 고흐' 등은 중국, 일본 등지에서 라이선스 형태로 공연되고 있다. 10년 가까이 개발을 거듭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투란도트(Turandot)'는 슬로바키아 국립극장인 '노바스체나 극장(Divadlo Novás-)



céna)'에 라이선스 공연을 추진하며 유럽 진출을 노크하고 있다. 중국은 '한한령'으로 잠시 주춤하지만, 공연문화에 대한 열망이 강해 웨스트엔드, 브로드웨이 다음으로 꼽히는 한국 뮤지컬과의 교류에 대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쯤 되면 2011년 '궁', '미녀는 괴로워' 등으로 시작했던 '뮤지컬 한류'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더 눈을 돌리면 언버벌(Non Verbal) 퍼포먼스로 세계를 정복한 '난타'와 코미디 프로그램 코너로 시작해 에든버러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아시아 아트 어워드 베스트 코미디 상'까지 타며 세상을 놀라게 한 '옹알스'가 있다. 우리의 공연산업이 한류 콘텐츠로 무르익는 분위기다.

고속 성장한 공연시장

한국의 공연산업이 짧은 시간 동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한국 특유의 '톤앤

〇〇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공연의 산업화, 시스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〇〇

매너'를 꼽을 수 있다. 한국 뮤지컬은 익살스러운 애드립과 빠른 전개 등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강하다. 이는 드라마 요소를 중시하는 정통 뮤지컬보다 관객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장점이 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소재의 참신함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데스노트' 등 애니컬(애니메이션+뮤지컬)이 유행하는 것처럼 나라마다 문화적 영향이 큰데 한국은 편견 없이 동·서양의 다양한 소재를 받아들여 작품으로 만든다. 달동네에 사는 여자와 외국인 노동자인 몽골 남자가 주인공인 뮤지컬 '빨래' 같은 작품이 좋은 예다. 공연산업의 한류를 이끄는 또 다른 원동력은 배우의 탁월함이다. '난타'나 '옹알스' 같은 언버벌 퍼포먼스부터 유럽까지 진출한 국립무용단 공연 등을 보면 아티스트들의 뛰어난 능력이 잘 발휘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영웅', '킹키부츠'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입지를 다져온 정성화, 웨스트엔드에 진출해 '미스 사이공' 25주년 특별공연에서 활약한 홍광호 등은 소문을 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와 작품을 관람할 정도다.

'슈퍼맨'에게 의지해 온 공연 한류

한국의 공연산업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갈라진 시멘트 같다. 우선 정확한 시장 규모를 추산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현장과의 간극이 크다. 2017년 기준 KOPIS에서는 매출 총액을 871억 원 정도로 집계했으나 공연 예매 최대 점유율(약 70~80%)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터파크는 2017년 티켓 판매금액을 4411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대략 뮤지컬 시장을 3000억 원, 전체 공연 시장을 6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넌버벌 퍼포먼스 팀 '옹알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태생적인 공연계의 특성을 꼽는다. 영세한 중소 규모의 제작사가 많고, 무대만 있으면 어디서나 공연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으로 공연 제작사들의 부실한 경영 상태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매년 공연 제작사의 임금체불이 이슈가 되고 있다. 2016년 '엠뮤지컬아트'는 '삼총사', '잭더리퍼' 등 연간 판매랭킹 상위권인 작품들을 제작했음에도 재정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뮤지컬 '록키'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제작 포기를 선언하며 사라졌다. 2017년 폐업한 '아시아브리지 콘텐츠' 역시 임금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수십억 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뮤지컬 '페스트'의 제작사 스포트라이트와 투자기업 간의 소송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류', 즉 흐름이 되려면 최초의 진원지를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공연문화는 분명 여러 어려움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

히 가장 산업화된 공연 예술인 뮤지컬의 경우 기술이나 배우의 역량 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다. 그런데도 좀처럼 해외 수출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국 공연의 바탕이 되는 핵심 콘텐츠인 '이야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외 진출에 성공한 작품 대부분이 문화적·정서적으로 공감이 쉬운 동아시아권에서 이뤄지는 것이나, 넌버벌 퍼포먼스 쪽에서 두드러지게 각광 받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마타하리나' '프랑켄슈타인', '투란도트' 역시 서양의 이야기를 소스로 활용한 경우다.

그렇다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공연의 산업화, 시스템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관객 데이터와 매출액이 1원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영화 시장, 스트리밍과 실시간 차트로 대표되는 온라인 생태계가 자리 잡은 음악 시장,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MCN(멀티 채널 네트



뮤지컬 투란도트
[출처: DMF]



“ 현재 한국의 공연 시장은 여전히 연출이나 제작자의 '감'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관행에 머물러 있다. ”

워크, 게임 산업 등 다른 한류 산업들의 공통점이 디지털, 데이터화가 진행된 분야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산업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됐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콘텐츠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국의 공연 시장은 여전히 연출이나 제작자의 '감'에 의존하는 구시대적 관행에 머물러 있다. '글은 엉덩이로 쓰는 것'이란 말이 있듯이 콘텐츠 개발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다. 다행히 CJ문화재단 '스테이지 업', 우림문화재단의 '시아 프로젝트', 충무아트센터의 '블랙앤블루' 등 다양한 곳에서 창작 작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신인 데뷔'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더 넓은 안목으로 지속적인 창작 역량 육성을 도울 프로젝트가 요원하다.

결국, 내실이 먼저다

한류 공연의 전파를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란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예술은 배고프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 근본을 되짚어서 예술 역시 '노동이 요구되는' 산업이고 '노동은 사람이 건강할 때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예술노동자 역시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최선을 다해 예술 활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런 역할은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요구된다. 수입이 없을 때 지원금을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제도 '앵테르미탕'이 프랑스에 가져온 문화적 혜택을 생각해봐야 한다.

공연은 한 번 만들기는 어렵지만 만들고 나면 여타의 장르보다 생명력이 긴 점이 특징이다. 이른바 '세계 4대 뮤지컬'로 통하는 '카메론 매킨토시 빅4(Cameron Mackintosh's Big 4)' 중 하나인 '캣츠(Cat's)'는 초연이 올라간 지 3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 세계에서 흥행하고 있다. 캣츠의 작곡가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 탄생 70주년 기념 콘서트가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뮤지컬은 다른 '한류'보다 훨씬 오랫동안 사랑 받는 콘텐츠가 될 밑바탕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공연 주체들을 향한 갖은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 제도 등이 갖춰졌을 때 공연 한류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①